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2호 【부제 제25435호】 주제 105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에 떠날리워 류경안과종합병원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최한하게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장들인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리문곤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류경안과종합병원은 4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8층으로 된 입원실병동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여러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하여 봉사해주는 안경상점까지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우리 인민들의 시력문제를 걱정하시며 안과종합병원건설을 직접 받기하시고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었을뿐만아니라 힘있는 건설력량과 자재보장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5월 새로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땅의 의도대로 설계단위, 시공단위, 운영단위들사이의 3자합의를 강화하면서 건설한 결과 미학적, 편리성, 실용성이 철저히 보장된 휴잡음에 없는 의료봉사기지가 일떠섰다고 말씀하시였다.

산뜻하게 꾸러진 휴식공간과 환동출은 물론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의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안과전문병원으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게 설비와 가구비품들을 구색이 맞게 배치하였을뿐만아니라 실내장식도 잘하였다고 하시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에 그르히 갖추어놓은 설비들이 첨단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과치료설비들을 모두 갖추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에네르기절약형건물, 녹색건축물로 일떠세우기 위해 지열에 의한 냉난방계통을 도입하고 태양발전지반을

일떠시키고있는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을 계기로 병원건설을 끝낼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류경안과종합병원 건설정형을 수시로 료해하시고 우리 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전문병원으로 꾸러시기 위하여 병원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각종 비품들, 안경상점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직접 맡아 해결해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8천선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즐거운 투

쟁을 벌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세계적수준의 현대적인 안과전문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지난 1월 병원부지를 잡아주던 날이 었고제같은데 벌써 병원이 최한하게 건설되었다고, 병원으로 들어서면서 마주보이는 외래병동의 앞면을 사람의 눈으로 생동하게 형성하고 입원실병동 외벽에는 시력검사표를 붙이었는데 외형만 보고서도 안과전문병원이라는 것이 알린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류경치과병원, 육류야동

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집중되어있는 문수지구에 현대적인 류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곳이 병원촌으로서의 면모를 더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웃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들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설비들의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최상의

설치하였으며 건물옥상에 입원환자들이 휴식할수 있도록 정원까지 꾸려놓았는데 정말 잘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에 꾸러놓은 안경상점들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류경안과종합병원이 눈치료를 하는 전문병원이면서도 안경봉사까지 해주는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써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안경상점을 훌륭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안경상업의 진척태를마다에 남자안경, 여자안경, 어린이안경, 색안경, 자전거용안경, 운동용안경, 수경을 비롯한 갖가지 안경들과 부속품들, 광학기재들이 딱 차있는데 상점이 문을 열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안경상점에 시력검사실, 교정실, 가공실도 훌륭히 꾸려놓음으로써 안경봉사의 과학성, 친절성,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안과 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과 봉사자들, 종업원들이 책임성과 실무적지질을

부담히 높여 의료봉사활동을 질질데 대한 문제, 병원을 항상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거두고 설비들과 비품들을 애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등 병원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당 단위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의 안경태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기술공정을 꾸릴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안과 종합병원은 병원다운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을에 드는 내놓고 자랑 할만 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안과 종합병원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담풍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중중, 인민사랑이 일떠세운 병원,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과시하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병원건설을 훌륭히 완공한 8건설국과 설계단위의 일군들, 건설자들의 로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류경안과 종합병원까지 건설됨으로써 우리가 최근 몇년사이에 해마다 현대적인 각종 의료

봉사기지를 하나씩 일떠세운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고있는것은 결코 나라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류경안과종합병원이 문을 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는데 사소한 빈틈이 없도록 병원운영준비를 더 착실히 하여 10월말에 개원식을 진행하고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시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과 봉사자들, 종업원들은 인민들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 인민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류경안과종합병원에서는 인민들이 격정에 겨워 부르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세상이 들썩하게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정지정보도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년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진정하였다.

영광스러운 《8. 2》의 기치 밑에 우리 혁명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역세게 이끄시어 주체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억년기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만수무단으로 뜨겁게 끓어찼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놓여 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자들이

적여져있었다.

군중들은 다채한 사상과 비범한 명도로 주체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백성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시어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붙여보며 김제위인들의 동상을 우리리 삼가 인사할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만수대학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려양상들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가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일군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놓여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려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8. 2》에서 닦을 올린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계승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계승한 불패의 당

외국인들의 반향

《8. 2》에서 닦을 올린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해가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외국인들의 격찬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라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송치프 플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8. 2》의 걸성으로부터 시작된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져 있다.

《8. 2》는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부름이다.

그 뿌리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자주성을 확고히 전지하고 주체의 한길로 뜻뜻이 전진하여 올수 있었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계승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높은 존엄과 권위를 지니고있으며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같이 장구한 기간 사소한 침체와 담보, 통요와 좌절을 모르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킨 당은 이 세상에 없다.

《8. 2》의 기치높이 위대한 승리와 변혁을 이룩해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져있다.

기체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 세우나 카마라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은 당의 자랑스러운 혁명전통에 기초하고있다.

《8. 2》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은 당건설과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

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의 혁명적당들과 진보적인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승리적인 전에서 커다란 힘을 얻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선도해나가는 혁명의 동태이라고 격찬하였다.

수리아 디마스그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씨페르 밥론은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굳건히 계승되는 당은 필승불패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8. 2》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그 어떤 강적도 다스랄 수 있고 세계적인 창조와 변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조선혁명의 실권을 통하여 확증된 고귀한 진리이다.

인민대중을 이끌어 전개하는 대승리, 대사변을 편이여 창조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영웅적기상과 역설 발걸음은 온 행성을 진감시키고있다.

고결한 총성과 장철의 신념, 락철한 명도로 주체의 혁명적당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김정은각하의 천출위인상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이시야말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시다.

우리는 회세의 천출위인을 모신 조선로동당의 모속하고 새련된 병도민에 《8. 2》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이 빛나게 완성되리라 것을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에 즈음하여

연극 《혈맥》 공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90돐을 맞으며 연극 《혈맥》 공연이 17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드. C》에서 뿌리내린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깊이 빛내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에 총공격전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어번지

고있었다.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인의 풍광, 기업소일꾼들, 풍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연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서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당이 제시한 세태드증산과제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되는 상원세태드증산합동소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생동한 예술적화복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실망없이 간직하고 자강적제일주의기치높이 과학기술을 앞세워 우리식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높아진 세태드증산목표를 거머쥐어 수행한 기업소의 일

군들과 노동자들의 투쟁모습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바르신 수에서도 한 t의 세태드라마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애국충정을 바쳐가는 상원의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전하는 장면들은 장대를 뜨거운 격정으로 심하게 하였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귀중한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드라카와 이어 놓고 언제나 당과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사대의 참된 인간들이며 자강적제일주의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승리이라는 절대불변의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90돐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혁명가요무대공연을 진행되었다.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혁명가요무대 《가리마 백두산으로》 공연이 17일 당상진기념관광장에서 있었다.

합창 《가리마 백두산으로》로 시작된 무대에는 합창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냥가》, 여성6중창 《동무야

모여라》, 남성6중창 불후의 고전적 명작 《고향가》, 순종공공주와 항일혁명군부총 《홍동원가》, 《즐거운 무도곡》, 《인민주권가》 등의 풍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라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부터 90성상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드. C》의 전통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전진적으로 구현하여온 긍지높은년대기임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바라던 함흥용위부사들이 심장으로 지어부른 불멸의 혁명

가 《조선의 불멸》 실화와 향상으로 울려 퍼져 자드된 불멸의 열세위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로 열세되었다.

준엄한 항일의 불길만리, 혈전만리를 피로써 헤쳐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이 땅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가슴에 새겨주시는 시와 노래 불후의 고전적명작 《반일전가》, 선동이야기와 합창 《적기》를 비롯한 풍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행성이 어찌없는 혁명의 불을 높이 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드. C》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한 선배자랑 청년전위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합창 《정순송가》, 광고와 가리마 《우리는 만리마기수》, 남성중창 《우리의 자랑이리네》 등의 풍목들에서 힘있게 분출되었다.

취주악과 합창 혁명송가 《김정은장군전가》로 끝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열정을 받았다.

청년동맹일꾼들, 평양시인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각 도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혁명가요무대공연을 진행되었다.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90돐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7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위대한 설계도따라 총성의 200일전투의 주요요구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승기를 남김없이 펼쳐서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드. C》결정성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로 열세되고있었다.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 등에서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져서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백진택을 조선로동당의 만년조선인 주체의 혈통을 마련해주시고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우리 혁명의 개척자, 명도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찬양을 대를 이어 그리움을 읊바다를 걸치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 밑에 《드. C》에서 맞은 울린 력사의 그날로부터 혁명시대를 아로세게 온 조



화선시경제선동활동 활발히 전개

새로운 전위투쟁의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북부지역에서 중앙과 지방의 미술창작가들이 화선시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창작자들은 총공격전의 기상, 단숨에의 기상이 내재하는 북부피해부구건설을 총력투입하면서 혁명적이며 전위적인 창작활동으로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만수무강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은 화관을 예고 무산광산합기업소와 무산군 창원로동자구 등 피해부구건설현장에 달려가 경제선동활동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특수한 관례대로 심수원 수

천적지하막장까지 들어가 광산로동계급과 함께 버럭과 감탄을 내면서 혁신자들의 얼굴을 추사하고 그것을 소묘작품화하여 전시하는 이채로운 방식의 직관선동이 전위장에 최열과 광만을 더해주고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으로 발전되는 대형전투목표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몇몇한 삶의 순간순간을 잊어버리는 전위현들의 혁명적열의를 벽해해주고있다.

회방시와 무산군의 피해부구전투장소에 달려온 중앙미술창작자들의 창작가들도 호소성이 강한 수신평의 대형선전화, 구조 등 직관선동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완성함으로써 전위투쟁마다에 총공격전의 기상이 내재

게 하였으며 혁신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피해부구전투에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평양미술대학의 창작자들은 지칠 줄 모르는 창작적열정을 지니고 며칠이 걸려야 하던 대형선동화를 단 하루동안에 끝냈으며 성적이 미려한 많은 미술가사재들을 지원하였다.

함흥남도미술창작자의 창작가들도 이창과 서적이 다채로운 선동적인 소수, 다층이베드들이 우수축출처럼 일떠서는 무산군과 연산군의 살림집건설장소에서 혁신자들의 모습을 화복에 담으며 인민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장조례로 고무추동하고있다.

2016년 세계식량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 진행

2016년 세계식량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가 17일 인민대학승당에서 진행되었다.

농업성을 비롯한 현관단위 일꾼들과 주조 세계식량계획 대표,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부대표 등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한 식량 및 농업의 적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가 농업의 지속적발전과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서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선진적인 힘을 기울이고있는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발전시키고 국

제기구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간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농업에서 기후변화적응》, 《농업부문 세계화협업에 대하여》, 《식량안전과 어린이영양양판》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기후변화현상들과 그에 대처한 농업부문의 실천적대책에 대하여 활발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 손씻기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

세계손씻기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이 17일 민정대학승당년공원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교육위원회, 도시경영성을 비롯한 현관단위 일꾼들, 시인의 학생소년들, 교원들과 주조 유엔아동기금대표부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

었다.

발언자들은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설사증과 폐렴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흐르는 물에서의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는데서 큰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손씻기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 방법

을 잘 알고 생활화, 습성화해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손씻기를 습관화합시다》라는 제목의 해설선언이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손씻기방법에 대한 학생소년들의 소개활동을 보았으며 공천예술소조원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념우표 발행

마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을 맞아 국가우표 발행국에서는 기념우표 2종(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1종)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혁명의 시인이시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적추거인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는 불멸의 희곡을 담은 작품이 모셔진 소형전지 우표분에는 《라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 《주제 15(1926)~주제 105(2016)》이라는 글씨가 새겨져있다.

개별우표에는 《드. C》의 붉은기분배경으로 혁명의 생산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이 형성되어있다.

새로 발행된 기념우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의 혈통, 일심단결의 전통을 뜻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90돐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7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위대한 설계도따라 총성의 200일전투의 주요요구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승기를 남김없이 펼쳐서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드. C》결정성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로 열세되고있었다.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 등에서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져서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백진택을 조선로동당의 만년조선인 주체의 혈통을 마련해주시고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우리 혁명의 개척자, 명도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찬양을 대를 이어 그리움을 읊바다를 걸치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 밑에 《드. C》에서 맞은 울린 력사의 그날로부터 혁명시대를 아로세게 온 조

각지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90돐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7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위대한 설계도따라 총성의 200일전투의 주요요구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승기를 남김없이 펼쳐서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드. C》결정성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로 열세되고있었다.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 등에서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져서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백진택을 조선로동당의 만년조선인 주체의 혈통을 마련해주시고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우리 혁명의 개척자, 명도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찬양을 대를 이어 그리움을 읊바다를 걸치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 밑에 《드. C》에서 맞은 울린 력사의 그날로부터 혁명시대를 아로세게 온 조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90돐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7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위대한 설계도따라 총성의 200일전투의 주요요구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승기를 남김없이 펼쳐서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드. C》결정성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로 열세되고있었다.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 등에서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져서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백진택을 조선로동당의 만년조선인 주체의 혈통을 마련해주시고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우리 혁명의 개척자, 명도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찬양을 대를 이어 그리움을 읊바다를 걸치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 밑에 《드. C》에서 맞은 울린 력사의 그날로부터 혁명시대를 아로세게 온 조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기상과 본태를 힘있게 과시

총성의 200일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는

총성의 200일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는

총성의 200일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는

200일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는

200일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는

200일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는

각지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

각지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

각지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

녀맹원들

녀맹원들

녀맹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와 적십자회 창립 70돐 기념모임에 참가할 외국손님들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와 적십자회 창립 70돐 기념모임에 참가할 적십자 국제위원회, 적십자 및 적십자회 국제연맹과 단마크, 핀란드, 영국의 적십자사 대표들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와 적십자회 창립 70돐 기념모임에 참가할 적십자 국제위원회, 적십자 및 적십자회 국제연맹과 단마크, 핀란드, 영국의 적십자사 대표들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본조선인체육연합회 대표단이 떠나 갔다

제13차 인민체육대회에 참가하였던 리경경 상임리사회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체육연합회 대표단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 갔다.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대립단 귀국

오다크 파울 마이젤 우간다대통령부 선전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대립단이 17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